

개평마을

■ 코스 지도

선비의 고장 함양을 대표하는 한옥 마을



■ 오디오 가이드 리스트

구분	지명	주요내용	비고
1	구간소개	개평마을 소개	
2	일두 정여창 고택_1	정여창 고택의 구성	문화재
3	일두 정여창 고택_2	정여창 선생의 삶	문화재
4	하동정씨고가와 오담 고택	오래된 고택의 운치	문화재
5	우물과 종암	우물을 파면 안되는 마을	민속
6	일두 산책로	소나무 군락지와 당송 나무 이야기	민속
7	노참판댁 고가와 풍천 노씨 대종가	사초 노근영 선생 이야기	문화재

1. 구간소개

예부터 '좌안동 우함양'이라는 말이 있었듯이 함양은 선비의 고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높은 산과 험한 고개로 둘러싸여 있어 풍광 또한 매우 수려한 이곳에서는 일두 정여창 선생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배출됐습니다.

특히 이 곳 개평마을은 14세기부터 하동 정씨와 경주 김씨가 들어와 살다가 15세기에 풍천 노씨가 합류해 형성된 마을인데요, 이곳에는 여전히 남도지방의 대표적인 양반 고택인 일두 정여창 고택과 노침판댁 고가, 풍천노씨 대종가, 하동정씨 고가, 오담고택 등 고풍스런 한옥들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곳에는 후손들이 살고 있구요.

또 이 마을에는 옛 모습을 유지한 돌담길과 담장, 우물과 서원, 소나무숲 등도 만날 수가 있는데요, 개평마을의 흙과 돌을 섞은 담장은 배수기능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골목바닥에 깔아놓은 박석은 주인이나 손님이 말을 타고 올 때 하인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니, 그 시절 사람들의 지혜와 배려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을로 들어서면 세월을 온몸으로 견뎌낸 듯 한 휘어진 소나무와 흙과 돌을 섞어 쌓은 담장, 그 담장들 사이로 난 골목길, 그리고 오래 전부터 그 터를 지켰을 한옥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곳의 집들은 짧게는 100년 전, 길게는 400년 전 즈음에 지어진 집들이라는데 기나긴 세월을 잘 견뎌온 고택들을 보면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개평마을은 '개들'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남계천 주변에 위치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죠. 또 다른 문헌에는 마을의 모양새가 한자로 끼일 '개'자와 비슷해서 개평마을이라 불렀다고 하는데, 어찌 불리던 둘 다 정감 가는 이름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이 마을이 유명한 이유 중 하나는 실천유학의 선구자 일두 정여창 선생의 탄생지이기 때문인데요. 정여창 선생은 전국의 수많은 향교와 서원에서 존경받았던 조선 성리학의 대가이죠.

출세보다는 학문에 힘썼고, 그것이 진짜 삶이라 여겼던 인물인데, 그런 정여창 선생의 기를 받아서일까요? 개평마을은 예부터 학자들이 많이 배출된 것으로 유명합니다.

현재 겨우 100가구 남짓한 이 마을에서만 걸출한 인물들이 많이 배출됐다고 하니, 이 터가 가진 기운이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개평마을로 들어가 보죠! 그런데 벌써부터 옷매무새에 신경을 쓰시는군요. 그것이 선비 고장이 주는 위엄인가 봅니다.

2. 일두 정여창 고택_1

개평마을에 들어서 작은 집들을 몇 채 지나면 우람한 솟을대문이 눈에 띕니다.

솟을 대문에서 뿜어져 나오는 위엄에 단번에 그곳이 일두 정여창 선생의 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솟을 대문 꼭대기에는 효자와 충신을 기려 나라에서 내렸다는 편액이 다섯 점이나 걸려있습니다. 정말 보통 집안이 정말 아닌 걸 알 수 있지요.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 바로 사랑채입니다.

이 집은 일두 선생이 타계하고 약 100년 후, 생가 터에 다시 지은 것인데, 안채, 사랑채, 대문채로 구성돼 있구요, 별도의 꼭간만도 다섯칸이나 되는 규모입니다. 고택 구석구석이 세월과 함께 밴 가풍과 전통의 향기로 충만합니다.

이 고택은 일두 정여창 선생이 타계하시고 후손들의 손에 의해 지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생전에 남을 배려하고 자신을 낮추었던 선생의 뜻이 이곳 저곳에 남아 있습니다.

사랑채 안, 사랑방 앞에 깔아 둔 큼직한 돌이 보이시나요?

이것은 잘못을 저지른 아랫사람을 훈계할 때 쓰였다는데요, 꼭 이 돌에서만 죄를 조용히 다스려 다른 이에게까지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아랫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었죠.

또한 사랑채에서 안채로 가기 위해서는 일각문을 지나 중문을 거쳐야하는데요, 이 중문의 문지방은 치마를 살짝만 들어 올려도 지날 수 있도록 낮습니다.

이 집을 방문했던 손님들을 배려한 공간도 있습니다.

일각문에서 사랑채로 연결된 구간에 나무와 칸막이가 보이시나요?

이것을 오줌 구시통이라 부릅니다

일종의 간이화장실인데, 사랑채의 손님들이 멀리 있는 뒷간까지 가지 않고도 소변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곳이지요.

주인의 세심한 배려가 고택 여기저기에 묻어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 이곳이 이렇게 대중들에게 더 알려지고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된 것은 드라마 촬영지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하드라마 <토지>와 드라마 <다모>등이 이곳을 배경으로 촬영되면서 유명세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3. 일두 정여창 고택_2

그럼 이곳의 주인이셨던 일두 정여창 선생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여창 선생은 조선시대의 최고의 성리학자의 한사람으로 추앙받았으며 그가 살았던 고택의 규모를 보아 그의 권세가 한없이 대단했을 거라 여겨지지만 그는 연산군 때 일어난 무오사화로 인해 유배를 떠나게 됨은 물론이고, 갑자사화로 인해 죽은 후에도 다시 극형에 처해진 '부관참시'를 당한 인물입니다.

당시 조정에서는 오랫동안 중앙에서 세력을 다져온 훈구파와 지방에서 학문을 연구한 사림파가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림파였던 김종직 선생의 제자 김일손이 그 일을 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김종직 선생이 쓴 '조의제문'에 연산군의 할아버지인 세조에 대해 안 좋은 이야기가 실리자, 이 사실을 훈구파가 연산군에게 알리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연산군은 진노하게 되고, 사림파들을 대거 숙청하는 사건이 생기죠.

이것이 무오사화입니다.

또 이후 어머니 폐비윤씨가 사림파 세력 때문에 사약을 받게 된 사실을 알게 된 연산군이 어머니에 대한 복수로 사림파 세력을 모두 숙청하는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사화인데요 정여창 선생이 바로 이 사림파였습니다.

사실 정여창 선생은 살아생전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과거급제 이후 짧은 기간 공직에 있었을 뿐 계속해서 학문에만 전념한 학자입니다.

이런 사상은 그의 호 '일두'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일두'. '한 마리의 좀벌레'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오래 된 책속에 사는 좀벌레처럼 책 속에 살겠다는 의지와 인간은 자연 앞에서는 벌레와 같은 아주 미비한 존재라는 겸손함을 나타내는 호입니다.

또, 정여창 선생은 효, 충, 의를 갖춘 인물로도 정평이 나있는데요, 무관이던 아버지가 전장에서 순직 하자, 그는 바로 전장으로 달려 가 한 달 동안 아버지의 시신을 찾아 헤매 결국 시신을 찾아내서 고향에 모셨다는 이야기가 유명합니다.

이후 조정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무공을 높게 사 그 영예를 아들인 정여창 선생에게 내리려 했는데요, 그는 극구 사양 했다고 합니다.

"무관은 무관으로서의 맡은 바 자기소임을 다했을 뿐입니다. 영예라는 것은 당대에 본인에게나 그치는 것이지 결코 후손이 그 영예를 받을 수는 없지요."

이 뿐만 아니라 지극정성으로 모셨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자, 나라에서는 그의 효행을 가상히 여겨 묘소와 비문을 마련해 주려 했지요.

하지만 이번에도 그는 사양했습니다.

"백성에게 노고를 끼치면 그 원성이 어머니에게 갈지도 모릅니다."

매우 고마운 일이긴 하나, 어머니는 제가 모시도록 해주십시오.'

요즘 세상 같았으면 너무 융통성 없는 인사로 알려졌을지 모르지만 이런 그의 청렴결백한 품성이 그를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학자로 만들었다는 데엔 이견이 없을 겁니다.

4. 노참판댁 고가와 풍천 노씨 대종가

돌담길이 이어진 옥계천을 따라 걷다보면 풍천노씨 대종가라는 낱말이 보이는데요,

골목으로 한 50미터쯤 들어가니 바로 눈에 띕니다.

이 집의 주인이었던 노광두 선생은 철종 때 호조참판까지 지낸 인물로 들어가기 전 한 눈에 봐도 꽤 오래 된 건물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노참판댁 고가는 수십 채의 한옥이 모여 있는 개평마을에서도 가장 오래된 건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채 마룻대에 적힌 건축년도는 오래 돼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노참판댁 고가의 안채가 마을 내에서 가장 오래되었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죠.

이 집은 대대로 풍천 노씨 가문이 대물림해 살던 곳인데, 구한말부터 일제 강점기까지 국내 바둑 최고수이자 최초로 국수 자리에 오른 사초 노근영 선생의 생가입니다.

전국을 유랑하며 내기 바둑을 두었던 사초 선생에 대해선 재밌는 얘기가 꽤 전해져 옵니다.

사초 : 허허 바둑두는 사람 어디갔나? 어쩔

친구 : 어허. 이 친구 조금만 기다려 보게나... 에이. 내가 졌네. 우리 한판만 더 합세. 딱 한판만 더!!

사초 : 어차피 해보나마나 아니겠는가. 나는 이만 가겠네... 어쩔

친구 : 아니 가긴 어딜가나!! 좋아 그럼 내 우리 집문서를 걸겠네.

사초 : 집문서라...!? 그 정도면 한번 해 볼만 하겠구만. 지고 나서 딱 소리하기 없기네.

바둑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바둑을 좋아했던 사초 노근영 선생은 가끔 황당한 내기 바둑을 두는 걸로도 유명했습니다.

한번은 며느리의 산후 조리 약을 지으러 시장터에 갔던 사초선생이 날이 저물도록 돌아오질 않자 며숨이 시장통 여기저기를 찾아다녔던 일화도 있습니다.

머숨 : 아니, 나오리. 애기씨 약을 지으러 아침에 나가셨는데 해질 무렵까지 안 오시니 무슨 일이 생긴줄 알았습니다. 여기서 바둑을 두고 계시면 어떡하십니까?

사초 : 아니 벌써 해질 무렵이 되었느냐? 딱 한판만 두고 간다는 것이..자 여기 며늘아가 약을 가지고 돌쇠 너는 먼저 돌아가 있거라. 딱 한판만 더 두고 갈테니..

노참판댁 고가보다 조금 더 마을 안쪽에 위치한 ‘풍천 노씨 대종가’는 송재 노숙동 선생의 집으로 15세기의 집터에 1824년에 새로 지었습니다.

당시 규모가 큰 세도가에서는 거의 집마다 사당을 모시고 있었는데, 이 집도 예외는 아닙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사당의 위치인데요. 일반적인 사당은 안채나 사랑채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위치하고 있지만 풍천 노씨 대종가의 사당은 안채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는 게 특징이죠.

노씨 대종가만의 독특한 풍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5. 하동정씨 고가와 오담 고택

이제 갈 곳은 개평마을에 있는 하동 정씨 고가입니다.

솥을 대문 안으로 너른 정원이 보이면 아마 열린 뛰어들어가고픈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집이죠.

오래 된 나무 몇 그루 덕에 집의 운치가 한층 더한데, 정원 저 쪽으로 일자형으로 돼 있는 고택은 안채입니다.

1880년에 지은 이 집은 사대부가의 저택답게 사랑채를 비롯해 다양한 건물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거의 무너지고 훼손 돼 작은 사랑채와 안채, 대문간채만 남아 있습니다.

집을 보는 동안 내내 '참 정갈하고 단아한 집이구나' 감탄을 하시게 되지요.

마음속으로 사라진 건물을 한 채 한 채 채워 넣어보세요.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었는지 짐작이 되시나요?

하동 정씨 고가를 나오면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둔 집이 있는데요, 이곳이 오담고택입니다.

오담 고택은 조선 말엽 문장가였던 오담 정환필 선생의 집인데요,

정환필 선생은 일두 정여창 선생의 12대 후손이죠. 종가에서 분가한 양반의 주거 양식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집의 특징을 집주인에게 좀 물어볼까요?

“이집의 구조적인 특성을 보면은 안동의 주거형태와는 달리 경상도 서부 경남의 독창적인 구조를 가졌어요. 사랑채는 보면은 편의시설을 없다손 치더라도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꾸며져 있어요. 문을 다 떼어내서 걸게 꾸며져 있기때문에 여름에 통풍이 잘 되가지고.... ”

사실 개평마을은 아름다운 한옥도 한옥이지만 주민들의 인심과 배려가 자랑거립니다.

이곳은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문을 활짝 열어두지요. 그냥 쓰옥 들어 와 서성거리며

고택을 둘러봐도 '누구나'는 질문대신 맘껏 보라고 편하게 해주신답니다.

따뜻한 인심과 배려가 어색하지 않은 주민들이죠.

하지만 건물을 재정비한 티가 좀 많이 나는 까닭에 옛것에 대한 아쉬운 맘이 들기도 하는데,

그 아쉬움은 마을 주민의 친절함으로 채울 수 있는 곳이 개평마을입니다.

6. 일두 산책로

개평마을을 한 바퀴 둘러봤다면, 이번에는 발걸음 가볍게 하는 산책을 해보세요.

개울가 다리 건너 소나무 언덕 쪽으로 이어진 일두 선생 산책로가 아주 좋거든요. 이 산책로는 평소 정여창 선생이 산책을 즐기던 코스를 재연해 놓은 곳인데요, 걷다보면 발걸음이 느려지고 자연의 소리와 더불어 마음의 소리까지도 듣게 되는 길입니다.

산책로의 출발 지점은 우물과 종암인데요, 이후 언덕의 당송 두 그루를 지나고 대숲과 논두렁을 건너 마을 초입의 소나무 군락지로 내려오면 산책이 마무리되죠.

일두 산책로에는 시간을 좀 두고 머무르고 싶은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당송이라 불리는 소나무인데요, 당송이라 하면 당제를 지내던 소나무란 의미입니다. 이 두 그루의 당송은 풍천노씨 중 가장 이 마을에 먼저 들어와서 정착한 ‘송재 노속동 선생’이 자신의 결혼 기념물로 심은 나무라는 설이 있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의 목소리로 이곳의 당송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들어볼까요?

"배처럼 생긴 개평마을의 돛대위치에 서 있다 해서 돛대나무라고도 합니다.

이 나무는 마을의 운명과 마을 사람들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서 마을의 성황나무로 여겨졌는데요, 해방 이후까지도 주민들은 이 나무에서 당제를 지내고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

한 그루는 마을 안쪽으로 휘어져 있고 다른 한 그루는 마을 바깥쪽으로 휘어져 있는데 마치 허리 굽은 할머니처럼 마을을 굽어보고 있는 듯 하지요. 아쉽게도 논두렁 태우기를 하면서 한 그루가 타버려 지금은 남은 한 그루만이 혼자 남아 마을의 돛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순간의 실수가 마을의 당송 한 그루를 잃게 했으니 마을 사람들의 시름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가고도 남지요?

당송이 있는 마을 언덕은 소나무 군락지로 연결되는데요, 소나무숲 사이에는 마을을 한눈에 굽어볼 수 있는 전망대도 있습니다.

층층이 이어진 한옥들의 지붕을 보니 그 어떤 그림이 이보다 아름다울까 싶네요.

전망대를 지나 마을 초입으로 내려가면 그곳에도 소나무 군락지를 만날 수 있는데,

이 군락지는 풍수지리학상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마을 숲, 즉 비보숲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담겨진 내용을 알고 마을을 내려다보니 오래된 한옥 사이로 푸른 소나무 정기가 마을 속으로 천천히 흐르는 듯 보이네요.

7. 우물과 종암

일두 산책로가 시작하는 부분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하나는 예쁜 돌담과 초가지붕이 정겨운 우물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둥근 종암입니다.

종암은 흔히 술병바위 또는 '다산'을 의미하는 알바위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우물과 종암에는 전해져 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개평마을은 풍수지리학적으로 배가 앞으로 나아가는 형국의 마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파면 안 된다고 해서 마을 사람들은 일절 다른 곳에는 우물을 파지 않았죠.

우물을 파는 순간 배에 구멍이 뚫리고 물이차서 마을의 기가 빠져나간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있다가 이내 행복을 찾은 이도 있어요. 고려시대 때

이 근처에 살던 한 아낙네인데, 어떤 사연이었는데 직접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금씨 성을 가진 아낙입니다. 고택에서 이곳으로

오실 때 건너던 개울가를 보셨나요? 그 근처에 저희 집이 있었지요.

남편과는 금실이 좋아 잘 지냈지만 불행하게도 저희는 슬하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나이 40이 넘어 태기가 느껴졌지요. 얼마나 행복했던지!

워낙에 노산인데다가 귀한 아이라 저는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정말 꼼짝하지

않고 아이를 기다렸지요. 아이가 태어나고 난 후 저희 부부는 정말 지극 정성으로 아이를

보살폈답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아이가 여덟 살이 되던 해

개울가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그만 물에 빠져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이었죠. (울먹)

마흔이 넘어 얻은 자신을 먼저 저 세상으로 떠나보낸 어미의 마음... 정말 당해보지 않은 분은

모르실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애간장이 다 녹아버리는 것만 같네요.

(흡쩍) 그 때 저는 몹시 앓았지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꿔요. 글썽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 "엄마! 나 종암 우물에 있어요! 거기서 숨바꼭질도 하고 잘 놀고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날이 밝는 대로 종암우물로 달려갔지요. 그리고 종암 주변을 돌며

아이를 꺼내기 위해 미친듯이 우물물을 마셔댔지요. 정말 배가 터져라 마셨는데... 근데 얼마

뒤 저는 다시 태기를 느꼈고, 50이 다 된 나이에 다시 아들을 낳았답니다. 먼저 떠난 아이

가 주고 간 선물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제 소문은 삼시간에 퍼졌어요. 그 후 자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곳에 와 종암을 돌며 소원을 빌었지요. 그런데 진짜 저처럼 아이를 얻었는

지는 잘 모르겠네요. 모두 정성을 들인 만큼 건강한 아이를 낳으셨으면 좋을 텐데 말이죠."

100여 채의 오래된 가옥들로 이루어진 이 곳 개평마을에서 우리 옛 선인들과 그들이 살았던 집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점점 이곳을 떠나는 게 아쉬워집니다.